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관습도감은 조선 초기에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부제조는 그곳의 관장 제조 다음의 직임이다. 공이 이곳의 부제조인 관계로 거기에 소속된 기생과 영인 (광대및묘기자)을 불러 풍악을 갖추게 해주었다. 이를 사헌부에서 듣고 알게 되어 장령허후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게 하니 허우가 영전迎錢(환영전별)의 회음會陰을 금한 것은 이미영으로 되었고 또한 지금 장마비가 재해가 되어 성상게서 진려塵慮하시는 시기에 대신들이 풍악을 울리며 연음宴飮을 하였으니 신등이 탄핵코저 하오나 풍문을 가지고 거론한다. 책망하실까 두려워 감히 거론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내 이미 알고 있다. 하는지라 물러 나와서는 탄핵하여 계문하기를 이미 무리로 술마시는 것을 금하는 영이 있었고 또한 음주를 경계하는 하교가 있었는데 다 지금 재해를 만나 진려하시는 때에 대소 신료가 마땅히 두려워하며 수성修省해야 할 터에 박신·이맹균·민의생 등이 대신으로서의 지극한 뜻을 채득치 아니하고 방언을 준수치 않으면서 공연히 연회에 참석하고 이순몽·조종생등은 맡고 있는 방면의 걸린바가 가볍지 않은데 그 위임한 뜻을 채득치 아니하고 긴요하지 않은 연고로 번거러움이 아뢰어 주달하기를 더럽히며 한달이 넘도록 부임치 아니하고 있다가 풍악을 동원해 전웅을 하고 권복·김간·윤창·박거소 등은 의심하고 두려워 하는 바가없이 잔치에가 함께 모여마셨으며 박거비·홍거안등은 방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함께 갖추어 빈객을 초청해 모았으니 모두다 아울러 부당합니다. 법률에 비추어 거·안·간·창·거소는 아울러 장90으로 하고. 신과 맹균·의생·순몽·종생·복·거비는 청컨대 법률을 살피고 교명을 받들어 죄를 과하되 순몽·맹균·종생·의생·복 등은 그직을 파하고 간·가·거소는 공신의 자식이되 또한그직을 파하고. 거비 또한 공신의 자식이므로 단지 그 직첩을 거두며 거안은 장70으로 하고 신과 창은 전함前咸(과거의직함)을 논하지 않키로 하겠습니다. 이순몽은 영양군 이몽의 아들인데 부친의 음덕으로 벼슬이 동지중추에 오르고 기해己亥(세종1년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하여 전공이 있어 자헌대부에 오르고 지난해의 파저강의 야인을 정토하여 사로잡고 획득한 것이 많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랐다. 그 사람됨이 광음부탕하여 일찍이 경상도에 갔을 때 모친의 묘소를 배소하고 돌아오면서 상주의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문경聞慶의 초재草材에 이르러 기생과 더불어 시내에서 목욕하고 데리고 나무 그늘로 들어가서는 기생과 음행을 한다고. 크게 외쳤으니 그 음행의 광탕함이 이와 같았다고 실록에 올라있다. 아무튼 전별연이 문제되어 공도 파직 되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종1품직으로 숭록이나 숭정대부崇政大夫가 맡은 명예직이며 그는 세종의 총애를 받는 명장으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고 위양威壤의 시호도 받았다. 그로부터 석달 가까히 지난 같은해 10월 30일자 실록의 인사이동에서 공은 판강계도호부사로 발령이 난다. 판강계도호부사는 강계도호부의 판사라는 뜻인데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원래 종3품이가는 직인데 품계가 그보다 높은 2품관이 갈 때 부사로 부르기에 품계가 넘치므로 판사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며 그직임은 같다. 다만 여기에서 공이 그동안 금주령 사건으로 잠시 파직되었지만 이때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된 것을 알 수 있다. 요직의 승진가도인 이조참의직에서 뜻밖의 일로 파직되어 외직으로 밀려났으나 경대부로 승진은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세종16년 1434년 11월 21일자 실록을 보면 갑오일 이날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백관의 조회를 받는다. 그리고 외직으로 나가는 신하의 하직인사를 받는데 그기사는 다음과 같다.

강계절제사 권복 江計節制使權復 지재령군사 윤신발등사知載寧郡事尹臣發等辭 인견위복왈 引見謂復曰 경리천원행卿離親遠行 필유은우必有隱憂 연여금강계然予念江界 경련피토 비타인소능당야非他人所能當也 차여력방강지시次予力方江之時 의기여차지임宜倚如此之任 경의체차卿宜遞差 경하대여언卿何對予言 위신발왈謂臣發曰 황해도금년흉겸黃海道今年凶兼 의가혜양무휼宜加惠養無恤 ; 강계절제사 권복과 지재령 군사 윤신발 등이 하직하니 불러 들여 보고 복에게 말하기를 경이 어버이를 떠나 멀리 가니 반드시 숨은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계를 생각할 때 그 경계가 저들(야인)의 땅과 연하여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는 능히 당할 수가 없는 자리다. 또한 경의 체력이 바야흐러 강장할 때에 의당히 이와 같은 책임을 맡기는 바이니 마땅히 채득하여 하되 그 조치를 베푸는 방도는 어찌 나의 말을 기다려 (늦추어) 행할 것이라. 신발에게 일러 말하기를 황해도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마땅히 은혜로서 어루만져 기르고 구제하라 하였다.

이로서 보면 공의 주 임무가 강계도절제사이되 가선대부이니 강계도도절제사이고 강계부사는 판사로서 이를 겸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그 공식 직함은 가선대부 강계도도절제사겸 판강계부사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 그 나이가 장년으로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음이 생각된다. 그리고 세종 10년 1428년 4월 6일에 그 부친 부윤공府尹公 숙肅이 별세하였으니 세종이 어버이를 떠나 멀리 간다고 한 것은 그 모친 정부인 여흥민씨는 편모로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어쩌든 세종이 인견시 이처럼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실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신임이 두터움을 짐작께 한다. 특히 부임해 가서 변방의 일로 신속히 조치할 일이 있으면 먼저시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되 왕명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읽지 말라고 위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세종 17년 1435년 6월 5일 을사일조 실록에 공의졸기가 실려 있다.

강계절제사권복졸江界節制使權復卒 복자자초안동인復字子初安東人 정유중무과丁酉中武科 누천판사복판통례병이조참의累遷判司通禮兵吏曹參議 갑인배강계절제사계가선甲寅配江界節制使階嘉善 지시순변향만포구자至是巡邊向滿浦口子 로우애석타중좌견이졸路遇崖石他中左肩而卒 복선사차유여력復善射且有呂力 급졸막불석지及卒莫不惜之 온양공양의신溫良恭儉讓畏愼 공상태종숙근옹주恭尙太宗女淑謹翁主 ; 강계절제사 권복이 졸했다. 복은 자가 자초이고 안동인이다. 정유년 무과에 급제하여 거듭 옮 겨서는 판사복시사判事僕侍事와 판통례원사判通禮院使를 거쳐 병조이조의 참의를 지냈다. 갑인 년에 강계절제사江界節制使를 배하여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였는데 이에 이르러 변경을 순시하다가 만포구자를 향하는 길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이 왼쪽어깨에 맞아 졸했다. 복은 활을 잘 쏘고 또한 여력이 있었는데 졸하게 되니 애석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아들이 일곱이니 온溫·양良·공恭·검儉·양讓·외畏·신愼인데 셋째 양효공襄孝恭은 태종太宗의딸 숙근옹주淑謹翁主를 상하였다.

만포구자는 지금의 만포진滿浦鎭으로서 만주의 집안과 연락되는 압록강의 내륙 포구이다. 이곳이 강제 읍에서는 130리가 떨어진 곳으로서 당시로서 최전방의 요충지였다. 당시의 강계부 관할은 근대의 강계군과는 달리 훨씬 커서 그 계내의 강계사군江界四郡이라 부르던 여정閭廷·무창茂昌·우예虞裔·자성慈城의 네 고을이 소속되어 있었고 특히 파저강의 야인을 막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만포구 자에도 뒤에 진을 베풀고 첨절제사를 두었기 때문에 만 포진으로 바뀌었거니와. 이때에는 거기에 진도 첨사도 없었기에 절제사가 직접 순시를 나가 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이 낙석으로 변을 당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지역의 지형이 매우 험준함 이고 마침 음력 6월 초의 장마철 이어서 지반이 빗물을 머금어 약해진 어떤 단에 밑의 잔도棧道를 지날 때 큰 규모의 낙석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추축된다.

공의 향년이 얼마였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공은 1년 전에 떠나면서 세종이 장년이라고 칭했으니 40초반을 그리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30세를 넘으면 장년으로 부르고 40세를 넘으면 이미 장년에서 버서 나는 것으로 통념하였다. 또한 강계부사는 문무관 간에 외직이어서 그곳을 거치면 의주부윤義州府尹 또는 목사로 옮기고 무관은 평안병사平安兵使 문관은 평안감사로 승진하는 예가 조선조를 통해서 많이 있었다. 공이 장년으로 판강계부사를 겸했기 때문에 이같은 불행이 없어더 라면 장차 평안관찰사를 거쳐 북진北進을 개척했던 김종서의 예와 같이 병조판서 등으로 들어와 내직의 경대부가 되기에 충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공이 졸하고 10일 만인 6월15일에 공에게 관직을 추증하는 기사가 나온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 필사 15세기 중단

▣ 최 순 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안동권씨족도 安東權氏族圖'는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 알려진 1476년 '안동권씨성화보成化譜'보다 20년 정도 앞서는 가계 기록이다. 이 족도에는 문종 비 현덕왕후와 그의 아들 단종이 기재記載된 부첨 附添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단종 재위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족도 하단과 좌측의 후손들 기록은 현덕왕후가 복권된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족도는 '성화보'와 같이 출생 순으로 아들과 딸(사위) 모두를 싣고 있다.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족도는 세로 61.3cm, 가로 219.8cm로, 그림 상·하부에 자주색 비단띠가 0.4~0.5cm1分5厘로 붙어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 전기 '손소 적개공신교서 孫昭敵愾功臣敎書(1467)' 및 '상대계회도 霜臺契會圖(1487)'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안동권씨족도'의 기계기록

구성내용

'안동권씨족도'는 원래 권여온權呂溫을 기점으로 현손 단종을 포함한 내외 후손들을 수록한 족도로, 후대에 권자신의 아들 권하를 기점으로 7대손 금호琴琥까지 내외후손들을 추록하였다. 여기에 336명의 자녀 자손이 확인된다.

원본의 경우, 맨 윗부분이 결실되

족도에 표기된 안동권씨족도, 경혜공 권전과 현덕왕후

기는 했지만, 아래 내외후손들의 구성원을 볼 때, 최종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권희봉權希逢과 권백종權伯宗이다. 권백종의 경우, 이름은 결실되어 있지만, 계선 아래에 아들 권전權專과 권촌權忖, 손녀 현덕왕후顯德王后(안동권씨 부정공파)가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권희봉의 경우, 육안 및 적외선 카메라 촬영에 희미하게 '將 權希逢'이 보이고, 권이權彝·권귀령 權龜齡·권겸權謙진수익權受益으로 이어지는 가계(안동권씨 중윤공파)가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을확인할수 있다.

이들은 권여온의 사위로 '안동권씨성화보'에 나온다. 여기에 권여온의 자녀로는 자子 윤경允景, 만경萬景, 여부女夫 권희봉權希逢, 자 현경玄景, 여부권백종權伯宗, 자 문경文景 등 6자녀가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안동권씨족도'에서 현재 확인되는 사람은 여부女夫 권희봉과 권백종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권여온의 아들 권윤경, 권만경, 권현경, 권문경의 후손들일 것이다. 현재 족도의 좌측에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권희봉과 권백종의 후손으로 확인된다. 출생순으로 권희봉 이후 권현경과 권문경은 '안동권씨성화보'에 '무후'라는 표기는 없지만, 무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권여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도에는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결실된 우측 부분의 경우, '자 권윤' 위로 붉은 색 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윤과 권연은 권만경 또는 권윤경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다만 '안동권씨성화보'에 권만경의 후손이 없고, 권윤경만이 여부 권직균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권만경 역시 권여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도에 기재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앞부분이 결실되어 있어, 그 전말을 알 수 없지만, '해주오씨족도' 등 여타 족도와 같이 권여온을 기점으로 위로는 직계조상 또는 장인의 가계가 단선적으로 기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안동권씨성화보'에 권여온이 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단지 권성태(權成泰, 또는 권견權堅)의 사위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조선초기 양측적 친속 관계를고려한다면, '안동권씨성화보'와 같이 권성태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족도의 자녀자손 구성을 볼 때, 당초 족도 원본은 단종 재위 기간에 작성한 권여온의 6자녀 자손도 子女子孫圖로보여 진다. 여기에 250명의 자녀자손이 확인된다.

이 원본에다 후대에 권자신의 아들 권하를 기점으로 자녀자손이 추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86명의 자녀자손이 확인된다. 여기에도 원본과 같이 출생순으로 남녀를 기재하였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후손들을 위아래 또는 좌우로 적고, 붉은색 계선으로 계보 관계만 나타내었다. 추록 내용은 권하의 아버지 권자신이 사육신 사건으로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고 파직되었기 때문에 매우 소략하다.

현재 안동권씨 부정공파 족보에도 족도와 같이 기재내용이 매우소략하다.

〈다음호에 계속〉

雲谷書院誌

운 곡 서 원 지

〈지난호에 이어〉

예천 종중의 답통에서도 사당을 경주에 힘써 세우는 것은 '경주가 바로 우리 시조께서 처음 출발하신 곳이기 때문인데 이미 신라 왕조의 종친이시고 또한 경주에 공훈을 세우셨으니 이것이 어찌 옛 고향이 아니겠느냐'고 하고 그러나 '큰일은 비롯함을 신중히 하는 것이니 거듭 원컨대 첨종께서는 기호(畿湖)의 여러 종중에 두루 알려 봉안한다면 추모를 하는 처지에 천만번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진보 종중의 답통은 '옛사람은 선배가 한번 말[馬]을 머물고 한번 시문(詩文)을 읊은 곳에도 비석을 세우고 사당을 세워 추모하는 정성을 붙였는데 하물며 경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시조 태사공의 영기(靈氣)가 깃든 고향임에랴'고 하고 아득한 세월이 흘러 비록 문헌으로 징험하기는 어려우나 태사공이 '이미 신라 왕조의 종친이니 귀부(貴府) 경주는 옛 고향이고 창의하고 도적을 토벌한 것이 또한 여기에 있으니 귀향(貴鄕)은 또 공훈을 세운 곳인데 또 낭중공의 부인 허씨의 묘소가 귀읍(貴邑)의 공암(孔巖)에 있으니 경주의 한 구역을 우리 시조에게 있어 어찌 시문을 읊고 지나간 여느 심상(尋常)한 곳과 비할 것이냐'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경기(經紀)하는 일에 대찬성인데 더구나 그 자리를 가려잡은 곳이 '산의 이름과 바위의 이름이 생긴 이래로 어렴풋 서로 합치되어 화산(花山)의 아래요 나천(羅川)의 위인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동년 7월에는 일제히 모여 운곡의 묘좌(卯坐)를 등진 자리 곧 서향(西向)의 땅에 터를 정하고 그 곁에 남아 있던 옛 운천서원(雲泉書院)의 재사(齋舍)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사를 할 때 임무를 맡을 40여 명을 선정하여 망기(望記)를 내니 도감(都監)에는 진사 권정흠(權正欽)과 유학(幼學) 권상적(權相績)이, 유사(有司)에는 유학 권구환(權龜煥: 운곡서원의 원규와 구획 및 제도는 그에 의해 이루어졌다.)과 생원 권창유(權昌愈)가 선임되었다.

동년 8월 초에는 영주(榮州) 순흥(順興) 종중에서 권수갑(權壽甲) 외 54인 명의의 답통이 오고 영주에서 권명수(權命守) 외 43인 연명(聯名)의 답통이 왔다. 순흥의 답통은 '대저 경주부는 고국(故國)의 산천이 아닌 것이 없고 화산(花山)의 발치는 선조의 영혼이 의연히 오르내리실 곳인데 사조암(思祖巖)은 후손이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갑절이나 더하게 한다'고 하였다. 영주의 답통은 '산의 이름이 화산(花山)인 것이 실로 득성(得姓)한 관향이 화산(花山 : 여기서의 화산은 안동을 가리킨다.)인 것과 부합되고 바위 이름이 사조(思祖)인 것이 추원(追遠)하는 정성과 정녕 합치된다'고 하였다. 이에 8월 17일에는 인근의 국동(菊洞) 즉 국당리(菊堂里)에 있는 문중의 선산과 운곡의 육림지(育林地)에서 벌목을 시작해 목재를 마련하고 진정덕(陳鼎德)의 육림지와 권정전(權正銓)의 사유림에서도 나무를 벌채하여 들여왔다. 그리하여 8월 29일에는 개기제(開基祭)를 행하고 이를 기하여 국동 문중에서는 그 위토(位土)로 밭 두 섬지기[石落]와 임야를 헌납하였다. 이날의 개기제는 묘시(卯時: 아침 8시)에 지냈는데 그 제문(祭文)에서는 '이 경주 고을을 돌아보건대 실로 고향이요 금오산은 창창(蒼蒼)히 푸르고 경준 남천 문수(蚊水)는 탕탕(蕩蕩)히 흘러 천년의 문물이 완연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손이 세거(世居)하면서 처창(悽愴)히 사모함이 더욱 영구하여 추원(追遠)의 의논이 있더니 비로소 금년에 완정(完定)하여 이곳에 자리를 가려잡았다'고 하였다.

9월 27일에는 주춧돌을 배열하였다. 이 달에 경주 일대의 각처 문중에서 돈과 곡식이 모여들었는데 노당(魯堂)의 문중전(門中錢)과 명하전(名下錢) 및 미곡(米穀)과 콩 등을 비롯하여 홍천(洪川)·갑산(甲山)·단구(丹丘)·송파(松坡)·사동(沙洞)·용동(龍洞)·왕릉(枉陵)·입실(入室)·태평리(太坪里)·시연(柴淵) 등의 문중에서 모은 돈과 곡식이 들어왔다.

10월 9일에는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을 하였는데 안계(安溪)의 참판 이헌묵(李憲默)이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보냈다. 이 상량문에서 '공덕이 산악과 같이 높아 안동에 이미 높이 보답하는 의전이 있고 자손이 옛 고향에서 추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곧이어 추원사를 세우니 한 구역이 목청(穆淸 : 하늘과 같이 높다는 뜻으로 임금의 덕으로 인해 세상이 잘 다스려져 화평함을 비유함)하다'고 하고 또 '이곳 동방의 옛 나라 신라는 진실로 태사의 관향이니 고귀한 제물로 향화(香火)를 올림을 어찌 안동 한 고을에서만 오로지하리오. 봄가을의 제사를 또한 본 경주의 여러 후손도 한 가지로 원하는 바이로다. 하물며 헤아리건대 구성(龜城)에는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을 숭모하는 사당(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구강서원을 가리킨다)이 있는데 대개 표암(瓢岩 : 경주 이씨의 발상지이다)의 지경(地境)을 취한 바이고 또한 영일의 오천(烏川)으로 건너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에게 밝은 제향을 베푸는 것이 마을 사람의 어리석은 공경심에서가 아님에 있어서랴'고 하였다.

동월 21일에는 전사청(典祀廳)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는데 이 무렵에 서울종중의 관서 권도(權導) 등 65명이 연명한 통문이 왔다. 이 통문은 시조의 고향인 경주에 사당을 세우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의에 합치된다는 뜻으로 충청도와 함경북도에 있는 종성인(宗姓人)의 뜻도 포함하여 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사당을 세우는 일은 실로 세대가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성거(盛擧)입니다. 헤아리건대 우리 시조께서 이미 신라의 종계(宗系)이고 또 들으니 낭중공(郎中公)의 배위(配位) 묘소가 또한 경주에 있다고 하니 세대가 유구히 멀어져서 비록 문자로 징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리로써 일으키는 정례(情禮)는 당연한 것인즉 무릇 자손되는 자 누가 감히 달리 하는 의논이 있겠습니까. 충청도와 황해도·함경도는 바야흐로 이 통문으로 고(告)한다'고 하였다.

한편 안동의 대종중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는 권문(權門)을 대표하여 추원사(追遠祠)를 창건하는 취지를 알리고 가부를 구하는 통문을 열읍(列邑)에 보냈다. 향교(鄕校)로서는 경주의 향교에, 묘원(廟院)으로서는 안동 부읍(府邑)의 태사묘 숭보당(崇報堂)에, 그리고 영남 일대 열읍의 서원과 문종에 보낸 것이다. 능동재사는 경주 향교에 보낸 통문에서 '우리 시조부군은 본래 신라의 종성(宗姓)으로써 역대의 신라 조정을 섬기다가 문득 역적 견훤(甄萱)이 하늘을 가리는 때를 만나 조국(祖國)이 무너져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는 부득이 의병을 모아 고려 태조를 구원하여 병산(甁山)의 승첩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헤아려보면 당일에 고려를 맞이한 거행이 오로지 복수를 하기 위한 데서 나왔고 본디 고려 태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장유후(張留侯 : 張良)가 한(漢)을 도와 한(韓)의 원수를 갚은 것과 서로 같습니다만 경순왕(敬順王)에게 회계(會稽 : 춘추시대 월왕 구천이 패전하고 와신상담한 곳)의 뜻이 없어 고려 왕에게 국가를 양여(讓與)하니 고려 왕의 위업은 날로 성대해져 천명(天命)이 스스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감히 조상의 덕을 높여 포승하여 남에게 휘황한 소문들 듣게 하려는 계책이 아니라 혹시 상상컨대 유구히 오래된 사적이라 이목(耳目)에 두루 미치지 못했을 것을 우려함'이라 하였다. 또 태사묘의 숭보당에 보낸 통문에서는 '이미 도내(道內)와 기호(畿湖) 지방의 여러 종족(宗族)이 있는 곳에 두루 고하여 모든 의논이 한 가지로 되고 묘우(廟宇)가 이미 이루어져 내년 봄에 봉안(奉安) 행사를 한다고 하므로' 가만히 생각건대 시조 태사공의 '본소(本所)가 원래 태사묘이니 장차 대사를 거행하자면 불가불 고해야 할 것이므로' 거울 같은 살핌과 염려를 청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열읍에 보낸 통문에서는 이미 동도 경주의 본소(本所)에서 보낸 통문을 통하여 자세한 경위를 알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역(事役)이 호대(浩大)하고 형세가 때에 맞춰 준공하기 어려우니 같은 소리를 내는 족류(族類)의 의리로' 이 일에 물심양면으로 송조(送助)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